유니클로 빈 자리… 지센 등 토종패션 겨울히트템 '득템'

유니클로 종로3가·구로점 이어 이마트월계점 다음달 15일 폐점

탑텐 8·15셔츠 인기, 매출 20%↑
스파오 '웜히트' 물량 75% 늘려
지센 경량 다운 제품 강화·확대
TBJ 점퍼·베스트 출시 앞당겨

19일 서울 명동 탑텐 매장을 찾은 고객이 발열내의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일본 제조·유통일괄형(SPA) 업체 유니클로가 '일본 불매 운동'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 해 장사를 좌우하는 가을·겨울(F/W) 시즌 매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토종 의류 업체들은 유니클로의 F/W 시즌 대표 아이템인 발열내의(히트텍), 경량패딩(조끼), 플리스(후리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품 물량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 이마트 월계점은 오는 9월 15일을 기점으로 폐점한다.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된 7월 이후 종로3가점, 구로점에 이은 3번째 폐점 소식이다.

유니클로 측은 예정된 일정대로 폐점 수순을 밟는 것일뿐, 불매 운동으로 인해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매 운동의 영향이 없지 않았을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유니클로는 국내에서 4년 연속 1조원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만 매출 1조3732억 원, 영업이익 2344억 원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7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발화한 일본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유니클로 매출은 6월 59억4000만 원에서 7월 17억8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70.1%나 급감한 것이다.

업계는 불매 운동이 겨울까지 지속될 경우 유니클로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을·겨울 시즌의 매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여름 시즌보다 중요하다"며 "이대로라면 유니클로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렇듯 유니클로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토종 의류 업체로 눈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신성통상의 탑텐은 지난 7월 선보인 '8.15 캠페인 티셔츠'가 불매 운동 시기와 맞물리면서 유니클로의 대체 업체로 급부상했다. 해당 티셔츠는 준비 된 물량 1만장 중 95% 이상이 조기 소진됐으며, 탑텐의 전체 매출도 약 20% 가량 늘었다.

올해 창립 73주년을 맞은 토종 속옷 업체 BYC는 심리스 제품 판매가 늘면서 2, 3차 리오더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쿨피아, 보디드라이 등 여름 제품의 7월 1일~8월 18일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3% 가량 증가했다.

토종 의류 업체들은 유니클로의 빈자리를 겨냥, 겨울 장사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탑텐은 겨울용 발열 내의인 '온에어' 물량을 지난해 대비 5배 많은 500만 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경량패딩 등 겨울 아우터 물량은 전년 대비 30% 가량 확대했다.

이랜드월드의 SPA 업체 스파오도 겨울용 내의인 '웜히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75% 수준으로 늘렸다.

위비스의 지센도 지난해 경량 다운 제품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 지센은 지난해 경량 다운 제품의 지난해 15만 장에서 올해는 30만 장까지 늘렸다.

지센은 오래 전부터 경량 다운 시장에서 토종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지난해에는 소재 선구매, 통합구매 시스템을 통해 원자재 비수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타사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경량 다운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TBJ는 플리스 점퍼와 경량 다운 베스트의 물량을 전년 대비 각각 100%, 30% 늘렸다. TBJ 관계자는 "플리스 점퍼는 이번주 출시 예정이고, 경량 다운 베스트는 2주 전에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작년보다 출시일이 빠르다"면서 "올해는 플리스 점퍼가 주력 제품이다"고 설명했다.

'리버서블 후드 점퍼'. /TBJ

아웃도어 브랜드도 플리스 제품을 앞세우고 있다. 최근 '2019 코볼드 독도 에디션'으로 주목 받은 바 있는 K2는 플리스 자켓 물량을 지난해 2만5000장에서 7만3000장 선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스타일은 지난해 2가지에서 올해 7가지로 늘렸다.

컬럼비아도 전년 대비 플리스 제품의 스타일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숏 플리스 재킷, 베스트 스타일 라인을 선보였지만, 올해는 이 외에 롱 플리스 재킷, 맨투맨, 후드, 터틀넥 등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을 출시했다. 컬럼비아 관계자는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플리스 재킷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올해 초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확실히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국가우수장학생 '한자리에'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인문 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및 역량강화 캠프'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장사 5곳 중 3곳 3분기 영업익 하락 전망

日 수출규제에 여행·항공사 반토막
SK하이닉스, 3분기 전망치 52%↓

한달 새 국내 주요 상장사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곳 중 3곳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영향이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반토막이 났고, 여행사와 항공사의 이익 전망치도 대폭 줄었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연결기준)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21곳 중 61.9%인 137곳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방침 발표 직전인 6월 말보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악화했다.

이 중 132곳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었고 2곳은 적자 전환, 3곳은 적자확대가 각각 예상됐다.

나머지 상장사 중 81곳(37.1%)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개선(1곳은 적자 축소, 1곳은 흑자 전환)됐고 3곳은 변동이 없었다.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곳은 여행, 항공업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을 찾는 한국 여행객이 줄고 홍콩 시위까지 격화되면서 여행사와 항공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크게 줄었다.

모두투어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6월 말 90억원에서 최근 28억원으로 69.0% 줄었고 하나투어 역시 158억원에서 78억원으로 50.5% 감소했다.

일본행 노선 감소로 국내 LCC도 큰 타격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영업익 전망치가 610억원에서 346억원으로 43.2% 쪼그라들었고, 티웨이항공도 19.7%(267억원→215억원) 감소했다.

규모로 보면 반도체 업종의 피해가 컸다. 지난달 4일부터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달 보름 새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반토막 났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최근 전망치는 4327억원으로 6월 말 전망치(9104억원)보다 52.5% 줄었다. 전년동기 실적과 비교하면 무려 93.3%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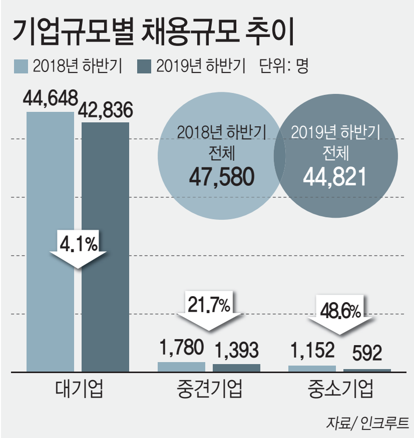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는 6월 말 7조5103억원에서 최근 6조9331억원으로 7.7%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60.6% 줄어든 수치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채용 안하는 대기업… 고용시장 '빨간불'

상장사 699곳 하반기 채용시장 조사

대기업 전년比 4% 줄어든 4.3만명
중견 22%·중소기업은 49% 줄여



하반기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기업 신입 대졸 채용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중소기업 채용도 2년 연속 반 토막 수준으로 줄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인크루트가 상장사 699곳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의사가 있는 상장사는 66.8%였고, 채용 규모는 4만8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하반기보다 5.8% 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아직 채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22.0%로 지난해 26.2%에서 4.2%포인트 줄었고,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11.2%로 지난해(6.7%)보다 4.5% 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지난해 대비 '채용 미정 기업'이 '채용 안 함'으로 바뀌면서 전체 채용계획의 소폭 감소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줄고 중견·중소기업은 증가했으나, 채용 규모는 모두 감소했다.

대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4만4648명의 채용을 예고했으나, 올해는 4만283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1년 사이 4.1%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6년 이후 2년 연속 채용규모를 늘려왔으나 올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대기업이 기침했다면 중견·중소기업은 골병든 꼴이다. 하반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예정 채용규모는 각각 1393명(지난해 1780명), 592명(지난해 1152명)에 그쳐, 전년 대비 중견기업은 21.7%포인트, 중소기업은 무려 48.6%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업 1곳당 채용하는 신입사원 수는 지난해 하반기 83.3명에서 올해 64.1명으로 1년 사이 약 20명 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년 연속 채용 규모가 하락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하반기 1곳당 채용 인원이 평균 5.7명이었지만, 올해 1.7명으로 줄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hys@